

# 놀이터 2000개인데... '놀 곳 없는' 광주 아이들

상당수 놀이터 낡고 녹슬어 '심각' 아이들 안전사고 등 발생 우려도 일부 아파트 운동기구로 바뀌기도 관련 정규 예산 없어 어려움 많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놀아요. 공간이 좁은 데다 시설도 없으니까요. 부모들도 기피할 정도입니다.”

지난 28일 찾은 광주 동구 한 아파트의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놀이터 옆 정자 역시 황량함만 자리했다.

입주민 김모씨는 주차장 한 쪽에 마련된 어린이 놀이터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요즘 아파트 대부분이 아이들이 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어릴때 생각해보면 동네 놀이터는 술래잡기도 하는 등 뛰어 놀만큼 컸다. 그런데 요즘은 미끄럼틀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는 이걸 ‘놀이터’라고 한다”며 “기구도 묵은 때가 끼었거나 일부 부품이 흔들거려 위험천만하다. 부모들 사이에서 ‘아파트 놀이터는 구색맞추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지적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어린이 놀이터 내 놀이시설이라고는 그네와 미끄럼틀이 전부였고, 철봉과 구름다리 등에는 부품이 빠져있거나 녹이 슬어 있었다. 자칫 아이들이 무심코 사용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커 보였다.



광주 공공 놀이터의 시설이 낡거나 노후화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된다. 사진은 왼쪽 남구 광주공원 놀이터, 오른쪽은 동구 학머리어린이공원 시설 모습. 정성현 기자

이곳은 노후화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더이상 아이들이 찾지 않게 됐다.

해당 아파트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 시설검사를 받고 있지만, 현장 내 시설 대부분은 개·보수가 절실한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관리인 지모씨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이곳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다들 인근 어린이 공원이 나 옆 브랜드 아파트 놀이터를 많이 간다. 아무래도 시설이 더 좋거나 마땅히 즐길 만한 것들이 없으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공용 어린이 놀이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동구 154개소 △서구 401개소 △남구 337개소 △북구 626개소 △광산구 657개소 등 총 2175개소다.

적지않는 숫자인데다 공용주택·어린이집 증가 등으로 매년 약 50개소씩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늘기만 하고 관리가 안된다는 점은 문제로 제기된다.

같은 날 방문한 광주공원 놀이터. 곳곳에 잡초가 자라있고, 시소·미끄럼틀 등의 시설에는 나사가 빠져 있어 위험천만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곳을 이용하던 한 부모는 아이에게 ‘위험하니 다른 기구에서

놀자’고 유도하기도 했다.

공원에 자주 들린다는 김모(65)씨는 “평일·주말없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곳을 찾는다. 대부분 시소나 그네를 태우곤 하는데, (기구들이) 성한 것이 없어 종종 부모들이 깜짝 놀라곤 한다”며 “주변 나무들도 관리가 하나도 안된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옆 나무그늘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다. 놀이터라고 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놀 곳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광주시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평소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개보수를 진행했다.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도 않아 다소 어려움이 많다”며 “광주공원 등 공공

어린이 시설 노후화·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의 확인 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교육이다. 아동의 놀 권리는 주체적인 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다”며 “특히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공놀이 등 육구 스포츠가 늘어났다. 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낙후돼 있다면 이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들을 위한 필수 공공 인프라 조성·개보수 등으로 어린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박소영 수습기자

## 여성단체, 광주시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촉구

市 “시설 충분” 여가부 지원 포기 “현 체계로 대응 부족... 대책 필요”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에 광주시가 공모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사)광주여성연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9일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 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범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시설 수가 많고 기존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쉼터)이 있다는 이유로 공모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9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스토킹 문제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입장과 상반되는 행동이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의 쉼터는 24시간 근무체계 운영이 불가능하고, 쉼터 내·외부 안전 장비 미비 등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민간단체로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현실적인 문제인식 없이 단순한 산술적인 접근으로 우리지역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을 포기한 광주시의 입장은 매우 안타깝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적극적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인 기자

## 박진 장관, 징용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면담

4월1일 광주 자택서 진행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면담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에 거주하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만난다.

29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체에 따르면 오는 4월1일 오후 1시께 이 할아버지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자택에서 박진 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면담이 끝난 후 대리인 및 지원단체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면담은 외교부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지난 6일 발표한 제3차 배상안을 이 할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풀이된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로 앞서 제3차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다.

한편 또 다른 생존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은 외교부가 같은날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인 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